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CUOMO 주지사, 뉴욕시 세인트 니콜라스 그리스 정교회당 및 국립 대성당 착공 발표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원래 교회 건물은 9/11에 파괴*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에 위치한 새로운 세인트 니콜라스 그리스 정교회 및 국립 대성당(St. Nicholas Greek Orthodox Church and National Shrine)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원래 교회 건물은 9/11에 파괴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렌즈 오브 세인트 니콜라스(Friends of St. Nicholas) 위원회가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과 협력을 통해 재개됩니다.

###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 공사 착공은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9/11에서 재건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깊은 믿음을 가지며 영혼이 충만한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더 나아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는 과거의 세인트 니콜라스보다 더욱 훌륭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세인트 니콜라스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모든 뉴욕인과 모든 미국인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Elpidophoros** 미국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20년 전, 우리의 세인트 니콜라스는 9/11라는 잿더미에서 사라져 간 우리의 동료 시민, 증오와 공포로 가득 찬 끔찍한 행위로 몸과 마음, 영혼에 상처를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되도록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 및 국립 대성당은 증오가 아닌 사랑, 편견이 아닌 재결합의 상징으로 문을 열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미국의 이상을 상징할 것입니다."

**항만청의 Kevin J. O'Tool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번 착공을 통해 세인트 니콜라스가 교구민과 방문객들이 9월 11일에 발생한

수많은 희생자에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는 장소로서 더욱 반영하고, 존경할 수 있는 엄숙한 장소로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 재건을 뒷받침했던 지속적인 회복력의 상징이며, 오늘은 어렵게 이루어낸 업적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항만청의 Rick Cotto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로어 맨해튼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재건의 새로운 장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 및 국립 대성당은 영감과 평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또한 방문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 정교회 공동체의 역사적 공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만청은 오늘 중요한 이정표를 시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Cuomo** 주지사와 함께 협력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설이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무역 센터 부지의 힘과 결의를 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교구(Archdiocese) 및 프렌즈 오브 세인트 니콜라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본래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St. Nicholas Church)는 시더 스트리트 155 번지에 위치했으나, 9월 11일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유일한 예배당입니다.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St. Nicholas Church)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교구(Archdiocese) 및 항만청(Port Authority)와 협력하여 교회 및 예배당(Church and National Shrine)을 더욱 크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재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개인적으로 기금을 모았습니다. 9/11 추모 광장(Memorial Plaza)의 남쪽의 리버티 스트리트 130 번지에 위치할 새로운 세인트 니콜라스 그리스 정교회 및 예배당(St. Nicholas Greek Orthodox Church and National Shrine)은 기도와 조용한 성찰의 장소로 활용되며, 또한 상실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탈교단 추모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기아 소피아(Hagia Sophia)의 비잔틴 교회 및 와 이스탄불의 성구주 교회(Church of the Holy Savior)를 모델로 한 이 복합 단지는 스페인 건축가 **Santiago Calatrava**가 설계하였으며,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에서 저녁 시간에 희망의 영원한 상징으로 빛을 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St. Nicholas Church)가 내딛는 걸음은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부지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는 항만청(Port Authority)의 헌신에 기반합니다. 2018년 **Cuomo** 주지사가 강력하게 지지한 협정에 따라 **Ronald O. Perelman** 공연 예술 센터(Ronald O. Perelman Performing Arts Center)의 메모리얼 플라자(Memorial Plaza) 북쪽으로 건설이 계속됩니다. 공연 예술 센터의 건립에는 최대 200,000 평방 피트 규모의 공간, 3 개의 홀, 리허설 공간, 레스토랑 1 곳, 선물 가게 1 곳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센터는 미국과 세계 전역의 뛰어난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등을 선보이는 예술, 아이디어, 문화 등의 창작과 교류를 위한 글로벌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